

떠오르는 STARTUP 이카루스

“안정적 통신 중계”...항공우주 산업 이끈다



이카루스가 광주과학기술원(GIST) 캠퍼스에서 연구 성과를 시연하고 있다.

12시간 연속 비행 가능 ‘무인 자율 비행선’ 개발 열기구 원리...섬유개발연구원 등과 경쟁력 강화 내년 고형서 실증...통신망 구축·특허 출원 목표

무인기(드론)·항공우주 시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항공우주 분야는 더 바빠졌다. 그중 드론은 개발 당시 정찰, 감시 등 군사적 목적을 위해 개발됐으나, 개인 레저와 섬 지역 간 택배서비스, 실시간 사고현장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비행시간과 오류 등으로 추락해 인명·재산 피해의 위험이 높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해 성층권에서 안정적 통신 중계를 위한 무인 자율 비행선을 개발하는 항공우주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창업기업 ‘이카루스’는 초고속·초저지연 통신을 제공하는 NTN(Non-Terrestrial Network, 비지상과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며, 지상 기지국과 위성 대비 빠르고 저렴한 통신망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이카루스는 ‘성층권에 비행선으로 통신망을 구축해 지상 기지국과 인공위성보다 빠르고 저렴한 통신을 제공’이란 경영목표로 지난 2024년 6월 출범했다.

광주과학기술원 학·석사를 졸업한 이종원 대표

(28)는 학창시절 로봇과 항공, 드론에 관심을 가지며 창업을 꿈꿨다.

이종원 대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연구가 아닌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며 “사업과 기술로 세상을 바꾼 많은 사람의 책을 읽으며, 비행선을 통해 성층권에서 우주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도전적이라 판단했다”고 창업배경을 설명했다.

이카루스(ICARUS)는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죽을 수 있는 비행선의 모습 이, 날개를 붙이고 하늘을 날다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 추락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한 이카루스의 의미를 담고 있다.

회사의 대표

제품은 ‘무인 자율 비행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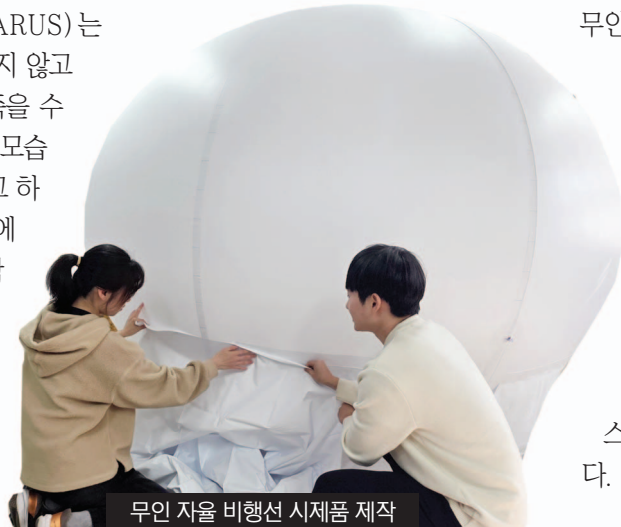
현재 해양 감시 범위는 전체의 약 16%에 불과하며, 항공기나 헬기를 통한 감시의 경우 높은 운용비와 안전성 문제가 있고, 드론은 짧은 비행시간으로 인해 넓은 해역을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길이 10여m 규모의 비행선은 공기의 부력을 통해 하늘에 떠 있는 열기구 비행 원리와 유사하다.

전국 해양 풍속 데이터 활용 시뮬레이션 결과 해양 환경 12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제작 원가도 대당 약 200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처럼 저비용·장기체공이 가능한 무인 비행선의 강점을 내세우며, 해양경찰청 납품 전문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성공하는 등 인지도를 쌓고 있다.

이종원 대표는 “저고도에서 무인 비행선을 활용해 전남 섬 지역의 항공 순찰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크기와 고도를 스케일업 해 나갈 계획이다”며 “해양 안전 모니터링, 불법 어업, 양식장 순찰, 적조 감시 등 지역 맞춤형 순찰 서비스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무인 자율 비행선 시제품 제작



이종원 대표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기업협업 프로그램에 선정돼 1억4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미국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선도 기업 ‘엔시스(Ansys)’와 협업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드론 제어 기술을 활용에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제어 SW를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한국섬유개발연구원(KTFDI)과 공동으로 초경량 및 고내후성의 장시간 체공이

가능한 무인비행선의 기낭(가스를 넣는 주머니)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내년 고형에서 무인 자율 비행선 실증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회사는 비행선 설계·제작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를 연구 중이며 항공우주 연구원에서 30여년 근무한 기술 고문을 영입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무인 자율 비행선의 사업성도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

이카루스는 올해 10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의 특별 부대행사 ‘K-딥테크 스타트업 왕중왕전’ 학생창업 부문 결선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광주시·전남도·한국전력 등이 주관한 학생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회사의 중장기적인 목표는 비행선 감시 영상 서비스 제공과 성층권 비행선 감시·모니터링,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위한 통신망 구축, 비행선 운용에 관한 특허 출원 등이다.

이종원 이카루스 대표는 “사업을 하는 목적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인 만큼, 무인 비행선을 통해 사람의 불편함 해소에 앞장서겠다”며 “인터넷 사각지대에 있는 29억명에게 새로운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KT, 위약금 면제·추가 데이터 제공... 해킹 보상안 발표

내달 13일까지...6개월간 데이터 100GB·OTT 이용권 제공

KT가 펌트셀 해킹 사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동통신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범위는 피해 발생이 식별된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해지한 고객까지 소급 적용되며, 기존 이용 고객에게는 6개월간 월 100GB 추가 데이터와 OTT 이용권, 생활 제휴 할인, 2년간 안심보험 등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영섭 KT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침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조사 결과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불법 기기의 비정상 접속을 차단하고 전사 서버에 대한 정밀 점검과 악성코드 제거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피해 가능성이 확인된 고객에 대해 소

액결제를 즉시 차단했으며, 유심 무상 교체 등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KT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 기간은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이며,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단,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 기기 변경 또는 재약정 고객과 알뜰폰, IoT, 직권 해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 면제는 현금 신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KT는 콘텐츠 분야에서 OTT 서비스 2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커피와 영화,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등 생활 밀착형 제휴처를 중심으로 한 멤버십 할인도 6개월간 운영한다. 안전·안심 보험도 2년간 제공한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KT 해킹 보상안 주요 내용	
계약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kt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 면제 (계약 해지 후 위약금 환급)	
해지기간 2025년 12월 31일~2026년 1월 13일	
대상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 (2025년 9월 1일부터 해지한 고객 소급 적용) ※ 단, 9월 1일 이후 신규 기기 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IoT, 직권 해지 고객은 면제 제외 ※ 대상 여부·예상 위약금 조회 가능 페이지 운영 예정	
환급신청 2026년 1월 14~31일 KT 홈페이지, 전국 KT 매장 통해 진행	
환급일정 해지일·신청일 따라 1월 22일·2월 5일·2월 19일 등으로 순차 진행	
안내 미신청 고객에게는 3차례에 걸쳐 별도 안내 예정	
고객 보답 프로그램 제공	
위약금 면제 종료일 기준 서비스 이용중일 경우 제공	
·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 자동 제공	
·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 OTT 서비스 6개월 이용권	
·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주요 멤버십 할인	
· 안전·안심 보험 2년간 무상 제공 (후대전화·피싱·해킹, 인터넷소방·중고거래사기 피해 보상)	
연말뉴스	자료:KT

우미건설, 전남대병원과 헬스케어 ‘맞손’

챔피언스시티에 예방·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추진

우미건설은 지난 29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김영길 우미건설 사장과 정진 전남대병원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생활권 기반의 예방·건강관리 중심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공동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미건설은 해당 서비스를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도시 내 새로운 헬스케어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건강관리 수요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주거와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헬스케어 모델을 검토 중이다. 향후 ‘챔피언스시티’의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헬스케어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전남대병원은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헬스케어 서비스의 형태와 운영 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의료



기능이 도시 중심부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챔피언스시티를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의료 포함 필수 도시 기능을 갖춘 완성형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